



굿바이 '익스플로러'...최신 브라우저 미리 익혀두세요

신종 바이러스·해킹 위협 예상...내년 6월 15일 종료 KISA, 11월까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

한때 웹 브라우저의 상징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가운데 새 브라우저를 익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IE 11 기술 지원을 오는 2022년 6월 15일 종료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술 지원이 끝나면 IE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이 날 이후로 IE를 실행하면 MS가 운영하는 다른 웹 브라우저 '엣지' (Edge)가 대신 켜진다. 이를 무시하고 IE를 계속 사용할 경우, IE를 통해 퍼지는 신종 해킹·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IE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남아있다.

2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IE 시장점유율은 5.27% (데스크톱·2021년 8월 기준)다. 전세계 평균인 1.17%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최근 국내에서 IE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은 눈에 띄게 없어졌다. IE에 최적화돼 발목을 잡았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웹 접근

성을 강화하는 등 'IE 탈출'에 힘쓴 결과다. 그럼에도 '익스플로러'는 이유로 IE를 쓰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IE는 MS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브라우저인 터라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불과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IE는 국내 시장점유율 91.55%를 차지했다.

하지만 IE는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져 왔다. 업데이트 주기가 느린데다 확장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포함해 보안·호환성 등 문제도 많았다. HTML5가 2014년 웹 표준 언어로 선정된 뒤에도 IE는 HTML5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MS도 IE와 거리를 벌리고 있다. MS는 지난 2015년 엣지를 출시한 후 IE 8, 9, 10 버전을 단종시켰다. 지난해에는 HTML5를 기반으로 하는 '유투브'를 IE에서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협업 도구 '팀즈', '마이크로소프트365' 등 IE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점차 늘어났다.

MS는 그동안 IE에 최적화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엣지 '레거시 모드'를 지원했으나, 그마저도 내년 3월 9일 지원이 종료된다.

IE 사용자들은 이제 다른 최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한다. '크롬' (Chrome·구글), '웨일' (Whale·네이버), '사파리' (Safari·애플), '파이어폭스' (Firefox·모질라), '오페라' (Opera) 등이 대 표적이다. 이들은 IE보다 빠른 속도, 안전한 보안,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으로 무장했다. 해킹·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데스크톱 웹 브라우저 점유율은 크롬이 69.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엣지가 14.46%, 웨일이 5.46%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도 'IE 탈출'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신 웹 브라우저 SNS 공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크롬, 웨일, 엣지, 사파리 등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경우, 캠페인 누리집(www.webbup.co.kr)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SNS(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 해시태그와 함께 캠페인을 공유하면 추천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루벤스 걸작 '삼손과 데릴라' 가짜였다 AI, 예술가 세부적 기법 분석...영 국립미술관 소장

이제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거장들의 작품에 대해 진위를 알아내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AI가 영국 국립미술관이 소장 중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걸작으로 알려진 '삼손과 데릴라' (사진)를 가짜라고 판명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유명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삼손과 데릴라'는 그동안 진위를 놓고 논쟁이 일었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그림은 삼손이 데릴라의 품에 자고 있고 하얀색 그의 초인적인 힘을 없애기 위해 머리 카락을 자르는 모습이 묘사돼있다.

AI 분석에 따르면 영국 국립박물관이 1980년에 250만 파운드(약 40억원)에 사들인 이 그림은 거의 가짜가 틀림없었다.

AI 프로그램에는 개별 예술가들의 독특한 붓 터치 방식을 포함해 세부적인 기법이 입력돼 있어 해당 작품 전체를 스캔하면서 진위를 판별했다.

스위스 회사인 '아트 레커레이션'과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한 카리나 포포비치 박사는 "매일

등 모든 게 가짜로 판명됐다"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하니 이 작품이 진짜가 아닐 확률이 91%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놀랐다"면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실험을 거듭했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국립박물관의 이 소장품은 1610년에 그려진 루벤스의 잃어버린 원본의 모조품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 그림에 사용된 팔레트는 루벤스가 일반적으로 선호했던 것과 다르고 그림의 질 또한 일치하지 않다는 견해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한편, AI 프로그램은 루벤스의 다른 작품 '이른 아침의 햇스테인 풍경'도 스캔했는데 진짜일 확률이 98.76%에 달했다. 진품이라는 의미다.

영국 국립박물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연구를 주목한다"면서 "어떤 증거도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G 가입자 199만명 넘는 사이...기지국은 '짙کم' 2분기 증가율, 가입자는 13.7% 기지국은 9%

5G 이동통신 품질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동안 기지국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G 가입자 비중이 전체의 25%에 육박했는데도 5G 기지국 비중은 10%를 겨우 넘겼다.

2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G 무선국은 16만2099개로, 이전 분기 14만8677개에 비해 1만3422개, 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G 가입자는 1448만명에서

1647만명으로 199만명, 13.7% 증가했다. 이는 5G 무선국 증가율이 가입자 증가율과 비교해 4.7% 포인트 못 미친 결과다.

2분기 전체 대비 5G 무선국 비중은 11%로, 1분기 10.2%보다 0.8%포인트 커졌다. 그러나 이 기간 LTE 무선국 비중 68%에 견줘 턱없이 작았고, 3G 무선국 비중 21%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5G 가입자가 전체의 23.81%에 달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했다. 2분기 전체 무선국은

147만3081개로, 1분기 146만1687개보다 1만1394개, 0.8% 증가했으나 지난해 2분기 151만1008개 이후 144만~148만개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업계는 무선국 1개에 들어가는 장비가 더 많은 5G 기술 특성상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5G 공동망이 구축되면 무선국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말만 투자 외엔 실제로는 수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5G 전국망이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집단 소송까지 잇따를 정도로 품질 문제가 심각한데도 무선국 증가 속도가 가입자 증가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체감 품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블루오리진, 10월 12일 두번째 우주관광...4명 탑승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오는 10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벤처사업가 등 4명을 유인캡슐에 태우고 두 번째 우주관광에 나선다.

28일 항공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연애편지 TMZ 등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은 전날 성명을 통해 두 번째 우주관광(NS-18 mission) 유인캡슐이 내달 12일 서부 텍사스에 있는 블루오리진 발사장

에서 오전 9시 30분(미국 동부시간) 뉴세퍼드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루오리진은 이번 비행에 지구관측회사 플래닛랩스 공동창업자 크리스 보슈이젠과 프랑소아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의 생명과학·보건 담당 부회장 클렌 드 브리스가 탑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애편지 TMZ는 이 우주관광에 유명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스타 트렉'에서 커크 선장 역을 연기

한 윌리엄 샤프너(90)가 탑승, 최고령 우주비행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루오리진은 그러나 나머지 탑승자 2명이 며칠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고 샤프너 탑승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번 임무에는 블루오리진이 젊은 세대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재단인 '미래를 위한 클럽'(Club for the Future)이 준비한 임시 수천 장도 함께 실린다.

블루오리진은 두번째 우주관광을 발사 한 시간 전부터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